헤/드/라/인/뉴/스



도깨비플러스

- [다이어트비결, 나만의비밀] 누구나 쉽게 10kg 뺄 수 있다
- 남성! 확실한 1시간대로! 남성비법
- 주말 체험캠프 500명 무료 초청
- 최고의 휴양, 코타키나바루 동반아동할인! 779,000~
- 키작은 아이 학교서 왕따당해.. 자녀키 10cm 더 키우는 방법?
- ::동아유학 해외캠프:: 어머니 인솔자 모집

축구공 안고 있는 '비닐 소년'의 정체는?

2005-12-21 11:44 | VIEW : 11,042



길거리에서 축구공을 안고 있는 아이. 석고상일까요? 아니면 눈이나 얼음으로 조각을 한 것일까요? 혹시 실제 아이가 비닐 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네이버 블로그 '도마뱀꼬리'에 'Tape baby'란 제목으로 지난 6월 올라온 이미지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었지만 Mark Jenkins's Tape babis란 명칭으로 봐 Mark Jenkins씨가 만든 테이프 조각이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링크된 주소(http://www.xmarkjenkinsx.com/)는 Mark Jenkins씨의 홈피였습니다. 그의 홈피에서는 다양한 테이프 조각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사는 Mark Jenkins씨는 도깨비 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테이프 조각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 연필에 테이프를 감아 연필형상의 조각품을 만든 적이 있다. 당시 선생님은 나에게 테이프를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몇년 전 영어선생님으로 브라질의 리오(Rio)에 거주하고 있었다. 옛기억을 떠올려 집에 있는 물건을 재미삼아 테이프를 감아봤고, 이때부터 조각품을 본격적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깨비뉴스 소개하고 싶다는 부탁에 그는 "한국의 인터넷 뉴스에 나의 조각작품이 실리게 되다니, 기쁘다"며 흔쾌히 승낙해주었습니다.
테이프만을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투명한 테이프 작품은 때때로 햇빛에 반사되어 얼음 조각 처럼 반짝이는 게 매력이다. 이 매력 때문에 테이프로 작품을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닉네임인 "Storker"보다 "Tape baby guy"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그는 테이프 아기 조각작품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장난꾸러기의 모습의 조각작품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 설치해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함께 즐길 수 있어 애착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아기 조각작품을 만드는 데는 1시간이 걸리며 테이프 1롤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 조각작품의 경우는 3~4일이 걸리기도 하며, 50롤 이상의 테이프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사람, 아기, 동물, 새, 전화기 등등 다양한데요, 단순히 테이프만을 이용하여 어떻게 이런 완전한 조각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는 한국의 블로그에 테이프 조각 사진이 돌아 다닌다는 말에 "나의 작품에 관심을 가져 줘서 고맙다"면서 "제작 과정을 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한국 네티즌들이라면 금세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아기 조각작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위와 같이 인형이나 장난감에 테이프를 감아 본을 뜬 후 칼로 잘라내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빼냅니다. 칼로 잘라낸 부분은 테이프로 이어 붙인후, 다시 테이프로 감아 형태를 고정시켜줍니다.
그의 작품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조각작품도 많았습니다. 어른 조각은 마네킹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마네킹으로도 표현하기 힘든 포즈는 친구의 몸에 직접 테이프를 감아 만들기도 합니다.

작품의 전시공간은 따로 달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 신호등, 놀이터, 시내 중심가 등 온세상이 그의 전시실이죠.



미국 뉴욕, 사이 좋은 꼬마들



미국 뉴욕,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



미국 워싱턴, 물구나무 서기



미국 워싱턴, 에스컬레이터 타기

한번은 워싱턴의 공원에 어른 조각작품을 설치해 두었는데, 노숙자 한사람이 "이 테이프 조각 작품을 갖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기쁨"이라며 테이프 조각작품을 달라고 청하기도 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했습니다.
결국 전시 후 그는 테이프 조각 작품을 공원의 노숙자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노숙자들은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며 자신들의 겉옷을 테이프조각작품에 입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 주어서 뿌듯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테이프 조각작품들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설원 위의 사람들



미국 워싱턴, 나도 택시 탈래요



미국 워싱턴, Rock Creek공원의 아이들



미국 워싱턴, 나는 커서 슈퍼맨이 될래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이 총 진짜예요?



미국 워싱턴, 다리가 길어 슬픈 여인



미국 워싱턴 Malcom X 공원의 사람들



미국 뉴욕, 만나서 반가워



미국 뉴욕, 신호등 위에 앉은 사람들



미국 뉴욕, 아침운동하기



미국 워싱턴, 전화기



미국 Assateague섬, 길 잃은 강아지



미국 볼티모어, 표지판위의 비둘기

도깨비뉴스 리포터 돌멩이

출처 : http://www.xmarkjenkinsx.com
http://blog.naver.com/stargaru/140013796035

210.115.128.105

헉	1등	2005-12-21 11:50:03 e* 211.230.47.178
...	....	2005-12-21 11:50:41 e*

		220.90.139.81
우워	햐.. 특이한 발상... 재미 있네요	2005-12-21 11:51:00 e* 210.124.9.125
신사동	우와~~신기하당..나도 저거 말들어 봐야지... ㅋㅋ	2005-12-21 12:35:15 e* 221.139.65.29
ㅇ	이거 만든 사람 지문이 다 지워진건 아닐까? 테이프쓰다보면 막 지문이 뜯겨지는느낌-.-;;	2005-12-21 14:32:59 e* 211.230.113.89
춘천거지	정말 아이디어 좋네요....느낌이 좋습니다.	2005-12-21 16:39:58 e* 59.30.152.107
비사이로막가	정말 징한 사람이네 나 만큼이나 대단하다 http://event.mymotorola.co.kr/event/20051219_event/event_connect_count.asp?cevent=PL0512210000006674	2005-12-21 23:32:31 e* 219.249.205.137
허허	진짜 기발한 발상이네..대단히 멋진 작품같다	2005-12-22 01:08:33 e* 211.186.204.222
허허	인정.. 작품으로 인정합니다.	2005-12-22 02:10:44 e* 220.127.127.30
ㅁㅁ	잔인해	2005-12-22 08:45:02 e* 213.3.32.159
좀머오기전에	합성이네	2005-12-22 13:14:22 e* 61.113.223.250
꿈유메dream	저거 보니 중햑교때 사과나 호박에 한지를 붙여서 어느정도 두꺼워지면 반갈라 내용물 뺀뒤 다시 한지조각으로 붙이고 색칠해서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던 생각이.. 전 감으로 했다가 단감이 홍시되 버렸습니다.	2005-12-23 01:00:46 e* 61.81.22.168
chinacoa	The Site For Desinger , WILL YOU GO, http://www.kecola.com	2005-12-23 09:31:37 e* 222.188.200.108

짧은의견 남기기. 400byte(한글200자)이내로 적어주세요. 현재 0 byte.

글쓰기창 늘이기 글쓰기창 줄이기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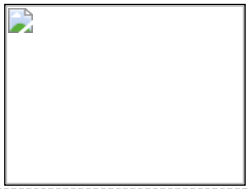
비밀번호

등록하기

기사 목록 답변의견

1[2][3][4][5][6][7][8][9][10] ≫

뉴스검색



3787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10 곳은?** [18] 2006.07.07

[우수상] 청계천로 : 서울시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 성동구 신답철교 지난 6일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 여기'란 제목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대상과 최우수상을 소개했습니다. 7일부터는 시도별로 나눠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곳 중 서울시입니다. 6일 최우수상 작품으로 ...

3786 **50대 주부가 애인 생기면 “가문의 영광”** [78] 2006.07.07

주부들이 ‘애인’에 대해 쓴 글 제목 중 일부 ‘호남형이지만 무뚝뚝하고 돈벌이가 시원찮은 남편, 생긴 것은 남편과 정 반대지만 돈 ...

3785 **도쿄서 허리띠 풀고 생선초밥 실컷 먹는 법** [16] 2006.07.07

[Travel]日도쿄 맛집여행… 생선초밥 한 접시가 850원! 초밥 시부야에 있는 105엔짜리회전초밥집 '쓰키지 본점'. 7접시 이상을 20분 ...

3784 **‘살타첼로’ "한국 팀이 브라질보다 더 좋은 팀"** [9] 2006.07.07

지난달 8일과 23일 도깨비뉴스는 ‘손기정 옹 추모 음반’, 2006월드컵 한국 축구 대표팀 응원가 ‘코리아, 고 파이팅 (Korea, Go Fighting!...

3783 **분당 정자동 카페골목 ‘테라스 맘’을 아시나요** [23] 2006.07.06

분당 정자동 카페골목의 오후 풍경 유럽 분위기 물씬 나는 거리 풍경…신상류층 주부들 각종 모임으로 한낮 점령 도깨비 뉴스가 지난 ...

3782 **휴가? 일단 잘 먹어야 즐겁죠** [20] 2006.07.06

해안따라 맛집따라 별미가 있어 즐겁다 부안 현대수산횟집의 생선회. 입맛처럼 까다로운 것이 있을까. 그래서 모든 이의 입맛을 맞추...

3781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 여기** [19] 2006.07.06

한국의 아름다운 길-대상(大賞) : 경남 사천시와 남해군을 연결하는 창선ㆍ삼천포 대교 경남 사천시 삼천포와 남해군 창선을 연결하는 ...

3780 **여름철 PC 열받지 않게하는 간단한 방법** [45] 2006.07.05

▼운영자 알림: 여름철 온도가 높으면 컴퓨터도 열을 받아 곧잘 다운 됩니다. 다운된 뒤 재부팅해서 PC가 켜지면 다행이지만, 메인보드나 C...

3779 **주몽과 소서노, 그 허깨비 사랑** [10] 2006.07.05

▲ 소서노와 주몽 ▲ 1. 주몽과 소서노, 세기의 사랑 드라마 ‘주몽’의 주인공은 주몽과 소서노이다. 이 드라마의 인기는 소서노와 주...

3778 **흰머리 독수리 가족의 24시간 인터넷 생중계** [7] 2006.07.04

3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州)의 과학자들이 북쪽 해안가 행콕 카운티에 위치한 소나무 위에 둥지를 튼 흰머리 독수리...

3777 **신안군, '노예청년' 방영 1주일만에 사과문** [14] 2006.07.05

▲ 7월 3일부터 신안군 홈페이지 첫화면에 뜬 사과성명 ▲ 전남 신안군 홈피에 '노예청년'과 관련란 사과 성명이 올라왔습니다. 도깨...

3776 **여행의 ‘집단지성’이 완성되는 광장 ‘윙버스’** [13] 2006.07.04

[도깨비 뉴스 기획 인터뷰] 호자이의 프로그레시브 웹(web2.0) 기행기③ 3편 : “블로거의 경험을 함축한 스팟(Spot)의 세계로…, 여...

3775 **"조국 진공" 첫 여성 보라매 권기옥의 꿈** [7] 2006.07.04

날개는 하늘 겨레의 꿈 태고 적 생명은 바다에서 태어나 땅을 가득 채우고 하늘을 꿈꾸었다. 하늘에의 꿈, 날고 싶다는 꿈은 진화를 향한 ...

3774 **전족, 중국 여성들의 고난의 흔적** [23] 2006.07.04

무딘 가위로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 주고 있는 나이든 딸, 자신의 발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늙은 어머니, 두사람의 표정과 어머니의 발의 ...

3773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든 '거시기'한 상황** [38] 2006.07.03

거시기가 거시기하는 장면 영.호남 사투리를 극적으로 활용한 풍자사극 '황산벌'에서 계백의 "거시기하자"는 말 때문에 '거시기'는 전국...

1[2][3][4][5][6][7][8][9][10] ≫

뉴스검색

넘 거시기한 말 거시 [38]
- 토고전 끝나고 찍은 19 [54]
- 이게 왜 19금? [26]